

# IFEZ, 글로벌 공작기계 기업 잇달아 유치

## 세계 3대 첨단고속 가공기업 바이스트로닉 입주... 中 中小 협력·기술이전 등 기대



1 준공식에 참석한 내외빈 2 바이스트로닉 송도 사옥 준공식



3 바이스트로닉 사옥 전경 4 기념사 하는 최영철 바이스트로닉코리아 대표이사 5 성용원 IFEZ 차장 축사 6 다그마 슈미트 타르탈리 주한 스위스 대사 축사 7 알렉스 바저 바이스트로닉 그룹 CEO 축사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가 세계 3대 금속가공시스템 제조사를 포함한 관련 기업을 잇달아 유치하면서 공작·가공 기계 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다.

먼저 바이스트로닉그룹(Bystronic Group)의 한국 법인인 바이스트로닉코리아가 지난 6월 9일 사옥 준공식을 송도동 11-108 IFEZ 4 공구 지식정보산업단지에서 열었다.

준공식에는 성용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알렉스 바저(Alex

Waser) 바이스트로닉그룹 최고경영자(CEO), 최영철 바이스트로닉코리아 대표, 다그마 슈미트 타르탈리(Dagmar Schmidt Tartagli) 주한 스위스 대사 등이 참석했다.

스위스 바이스트로닉그룹이 100% 투자한 바이스트로닉코리아는 지난 2018년 12월 투자계약 등을 거쳐 총사업비 약 100억 원을 들여 부지 3천360㎡에 사옥을 완공했다.

사옥에는 본사와 전사·교육센터(브랜드 익스피리언스 센터) 등이 들

어졌는데 전사·교육센터는 바이스트로닉 그룹이 아시아 지역에 보유한 센터 중 최대 규모다. 전사·교육센터는 국내 고객사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 엔지니어를 상대로 제품 교육을 하는 장소로 연간 방문객이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스위스 바이스트로닉 그룹은 세계 3대 첨단고속 가공시스템 기업 중 하나로 레이저 절단기, 절곡기, 공장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개발·제조한다. 세계 40개 이상 지사에 3천50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

는 스위스 증권거래소 상장 기업이다.

바이스트로닉코리아는 레이저 가공 시스템을 자동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와 연계해 철관 가공 업계의 디지털화에 앞장서고 있다. 바이스트로닉코리아 고객의 45%가 경인 지역에 집중된 만큼 인천 지역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협력도 기대된다.

최영철 바이스트로닉코리아 대표는 “준공식을 계기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대한민국의 판금 시장을 선도하도록 모든 임직원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바이스트로닉코리아가 등지를 틀면서 지난 2018년 10월 송도에 입주한 일본 아마다(AMADA) 사를 포함해 세계 3대 첨단 금속가공시스템 기업 중 독일의 트럼프 사를 제외한 글로벌 기업 2곳이 송도에 들어섰다. 일본 오쿠마(OKUMA) 사는 120여 년 역사를 가진 일본 공작기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송도에 ‘CNC 공작기계 교육훈련센터’를 완공해 지난 2018년 3월 입주한 바 있다.

성용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은 “바이스트로닉을 포함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송도에 입주하고 있다는 것은 IFEZ가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기업들로부터 높이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며 “바이스트로닉코리아 입주를 계기로 IFEZ의 첨단 산업 생태계가 한층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①



2



IFEZ, Global Business Frontier

# 탄탄한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IFEZ

**ifez** 인천경제자유구역  
Incheon Free Economic Zone

# INNOVATIVE GROWING CITY

